

작명으로 본 유충렬전의 인물 연구*

김 병 권**

차 례

- | | |
|---------------------|--------------------------|
| I. 서론 | 1. 履虎尾 不咥人과 인물 성격 |
| II. 작명을 통한 작품 이해 시각 | 2. 辨上下 定民志와 주제 형성 |
| 1. 의도적 작명 서술 | IV. 주역을 통한 작품 이해의 문화적 의의 |
| 2. 劉忠烈과 天澤履卦 | V. 결론 |
| III. 天澤履卦와 유충렬전의 구성 | |

국문초록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인물이다. 한 인물은 다른 인물과 구분되며, 이 구분은 성명으로 가능해진다. 작명은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각 국가 또는 민족의 특정한 문화와 심리를 반영한다.

『주역(周易)』이라고 불리는 『역경(易經)』은 중세에 유학자들의 필독서인 사서삼경(四書三經)의 하나였던 만큼 궁리진성(窮理盡性)하는 학문과 일상생활의 관습적인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주역』의 「계사전」

* 이 논문은 2008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교수

에서 “군자는 거(居)하면 그 상(象)을 보고 그 말을 살펴보며, 동(動)하면 그 변화함을 보고 그 점(占)을 살펴본다. 이 때문에 하늘로부터 도와 주어 길(吉)하며 이롭지 않음이 없다.”고 한다. 『주역』은 “성인(聖人)이 깊음을 다하고 기미를 살피는 것”이다. 변화는 “나아감과 물러감의 상(象)”이다. 점(占)은 “수(數)를 극진히 하여 미래를 아는 것”이다. 『주역』을 통해서 미래를 안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과 변화의 원리에 근거하여 사람이 실천해야 할 진리(眞理)와 도리(道理)를 추구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점을 본다는 말은 변화의 조짐을 알고 그 변화에 통하도록 준비하는 방편이라는 뜻이며, 그 변화의 진리와 도리를 실천하면 하늘이 돕고 길(吉)하여 이롭다는 것이 『주역』 점의 의의이다.

작명(作名)은 『주역』 점의 원리를 응용한 관습적인 문화의 하나이다. <유충렬전>에서 작가는 주인공의 성명을 작명한 의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작명 의도가 인물의 성격을 창조하고 작품의 주제를 형성하는 데 작용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고소설의 창작이 성명의 획수와 수리를 활용하여 구성한 『주역』의 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주제어 : 유충렬전, 문화관습, 작명, 인물성격, 작품주제, 주역원리, 천도(天道), 인도(人道)

I. 서론

문학 작품은 한 시대의 삶과 문화를 수용하여 창작한 산물이다. 현대 소설에 대한 고소설의 변별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창작된 시대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었던 관습적 문화와 관련하여 연구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관습적 문화는 고소설과 마찬가지로 제도

적 문화와 재도론(載道論)의 문학을 지향했던 유학자들의 담론에 의해서 배격된 담론이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고소설에서 수용한 관습적 문화는 사주, 관상, 작명, 천문, 그리고 현몽 등과 같이 다양하다. 고소설이 다양한 관습적 문화를 수용한 실태 연구¹⁾와 다양한 관습적 문화 가운데 인물의 작명이 고소설의 인물 성격, 사건 전개, 주제 형성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²⁾ 이러한 연구의 성과는 고소설 창작과 작품의 변별적 특성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인물이다. 그리고 한 인물은 다

-
- 1) 박용식, 『고소설의 원시종교사상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6.
 김병권, 「창선감의록에 서술된 점복의 서사문학적 의미」, 『국어교과교육연구』 3, 국어교과교육학회, 2002, 147~170쪽.
 - 2) 김병권, 「장풍운전 구성의 성명학적 접근」, 『어문교육논집』 17,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2000, 33~52쪽.
 김병권, 「창선감의록의 인물 작명 서술과 서사적 의미」, 『한국민족문화연구』 18,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1, 1~22쪽.
 김병권, 『홍길동전 창작의 주역적 원리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6, 국어교과교육학회, 2003, 235~260쪽.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의 수리성명학적 연구」, 『동남어문논집』 9, 동남어문학회, 2005, 51~71쪽.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 원천의 역상성명학적 연구」, 『한국문학논총』 44, 한국문학학회, 2006, 61~86쪽.
 김병권, 「열녀춘향수절가 구성의 주역적 원리 연구」, 『한국문학논총』 47, 한국문학학회, 2007, 5~33쪽.
 김병권, 「열녀춘향수절가의 주제 형성 연구」, 『퇴계학논총』 14, 퇴계학부산연구원, 2008, 199~224쪽.
 김현숙, 「심청전 구성의 수리성명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선훈, 「임경업전 구성의 수리성명학적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13, 국어교과교육학회, 2007, 283~311쪽.
 이선훈, 「임경업전 인물 형성화의 관습문화적 원리」, 『국어교과교육연구』 16, 국어교과교육학회, 2009, 89~124쪽.
 장순희, 「고전소설 교육을 위한 열녀춘향수절가 구성의 오행적 원리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른 인물과 구분되며, 이 구분은 성명으로 가능해진다. 성명은 일반적으로 인물에 대한 기대가 삶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작명된다. 이러한 작명은 현재에도 개인의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화적인 현상이다. 고소설 가운데 <창선감의록>, <홍길동전>, <장풍운전>, 그리고 <소대성전>은 주인공의 작명에서 기대했던 장래를 작품에서 서술한 작품들이다. <창선감의록>에서는 인물의 기골과 품성을 연성지벽(連城之璧)이라 판단하여 이름을 화진(花珍)이라 작명하였고,³⁾ <홍길동전>에서는 인물의 기골이 비범하여 영웅호걸의 상(相)이라 판단하고 이름을 홍길동(洪吉童)이라고 하였다.⁴⁾ <장풍운전>에서는 아이의 상(相)이 천하의 영준이라 판단하고 이름을 장풍운(張風雲)이라 작명하였으며,⁵⁾ <소대성전>에서는 아이의 기골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므로 조종을 빗낼 것이라고 기대하여 이름을 소대성(蘇大成)이라고 작명하였던 것이다.⁶⁾ 위에서 언급한 고소설들은 작명에서 기대했던 장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인물의 성격과 일생을 서술하고 작품의 주제를 형성한 작품이다.

이 연구의 대상 작품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많은 독자들을 확보했던 <유충렬전>이다. <유충렬전>의 작가는 인물의 관상(觀相)으로써 장래를 제시하고 인물의 성명을 ‘유충렬’이라고 작명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서술한 작명은 작가의 창작 체험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는 하나의 시각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정보이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작명으로써 작품을 이해하는 시각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작명에 사용한 한자의 획수와 수리를 활용하여 구성된 패의 상징적 의미와 작품의 창작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히

3) <창선감의록> 전, 규장각 소장 필사본, 제1장 후면~제2장 전면.

4) <홍길동전>, 경판 야동본 김동욱 편,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 5, 나손서옥, 1975, 1003~1018쪽 수록, 제1장 전면.

5) <장풍운전>, 완판본, 김동욱 편,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 2, 인문과학연구소, 1973, 545~562쪽 수록, 제1장 후면.

6) <소대성전>, 완판본, 김동욱 편,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 1, 인문과학연구소, 1973, 573~594쪽 수록, 제2장 후면.

고, 마지막으로 작명 원리와 『주역』의 상징적 의미를 적용하여 작품을 이해한 문화적 의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II. 작명을 통한 작품 이해의 시각

1. 의도적 작명 서술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방법은 작가의 세계관, 작품의 내재적 구조, 문학과 사회의 관계, 그리고 독자의 수용과 기대 등 다양하다. 이러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시각은 작가가 작품에서 제시한 내재적 정보에 의존하여 모색하는 것이 객관적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문학성을 얻도록 하고 작품 해석에 필요한 “서사구조 또는 문학적 장치”⁷⁾일 수 있으나, 작가가 작품에서 직접 묘사하거나 서술한 내용에 한정한다.

<유충렬전>에서는 작가가 소설 구성 요소의 하나인 인물의 성명을 ‘유충렬’이라고 작명한 과정을 서술한다. 그 내용은 영웅으로서 인물의 관상을 서술하며, 관상에 근거하여 인물의 장래를 판단하고, 작명하였음을 밝혀준다.

주부 기운이 쇠락하야 부인을 도라보와 왈 이 아히 상을 보니 천인적
 강 적실하고 만고영웅 분명하며 전일 황상계옵셔 도읍을 움기고져 하야
 창희국 사신 임경천다려 무르시니 임경천이 알외기를 북두정기난 남경
 의 흥강하고 자미원 디장성이 황성의 찌러져스니 미구의 신기훈 영웅이
 나리라 하더니 이 아히가 적실하니 엇지 안이 절겨오릿가 오리지 안이
 하야 디장 절월을 요한의 횡디하고 상장군 인수를 금낭의 년짓 너코 부
 귀영화난 선영의 빗니고 밍기영풍은 사히의 진동홀제 뉘안이 충찬하리

7) 최혜진, 「유충렬전의 문학적 형상화 방식」, 『고전문학연구』 13, 한국고전문학회, 1998, 150쪽.

요 산신의 집꾼 은택 사후의도 난망이요 빅골인들 이질손야 일흠을 충열이라 호고 자는 성학이라 호다⁸⁾

위의 내용은 <유충렬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주부 유심은 태어난 아들의 용준용안(隆準龍顏)이 번듯한 상(相)에 대해서 적당한 천인(天人)이며, 그 기골이 만고의 영웅이며, 천기(天機)를 관찰했던 임경천의 말을 인용하여 자미원(紫微垣) 대장성이라고 확신한다. 자미(紫微)는 북두칠성의 북쪽에 있는 성좌이며 천제(天帝)가 거처하는 곳이다. 이 자미원이 지상에서는 천자의 대궐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므로 자미원 대장성은 천자의 대궐을 지키는 장수를 상징한다.

그리고 유심은 관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이 아이가 성장하여 대장 절월(節鉞)을 요하에 차고 상장군 인수(印綬)를 금낭에 간직한 영웅으로서 천하를 평정함으로써 부귀영화(富貴榮華)가 선영에 빛나고 맹기영풍(猛氣英風)이 사해에 진동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충렬’이라 작명하고 자를 ‘성학’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작명은 의도적이며, 의도적인 작명을 통해서 작품에 표현된 작가의 창작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는 인물의 관상으로 판단한 장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작명하였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작품에서 서술한 의도적 작명이 함축한 정보는 그 인물의 성격과 행위를 통한 주제 형성의 단서가 되며, 독자가 작품을 이해하는 시각의 하나가 된다.

2. 劉忠烈과 天澤履卦

먼저 <유충렬전>에서 인물의 성격 또는 일생을 함축하여 의도적으로 작명한 ‘유충렬’은 관습적인 문화의 하나인 성명학으로 해석하면 어떤

8) <유충렬전> 상, 완판본, 김동욱 편,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 2, 인문과학연구소, 1973, 335~377쪽 수록, 제5장 전면~후면.

의미가 있을까?

고소설에서 작중 인물의 성명은 성씨의 명명, 실존인물의 명명, 탄생에 따른 명명, 도교와 관련된 명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⁹⁾. 그리고 고사(故事) 또는 전고(典故)의 내용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작명자의 기대를 드러내기도 한다.¹⁰⁾ 이런 견해는 고소설에서 작명의 일반적인 유형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작명자의 기대를 함축한 성명과 작품 내용의 유기적인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유충렬에 대한 기대와 작명은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가족의 부귀영화를 선영에 빛내는 일은 충(忠)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사해를 진동하는 맹기영풍은 열(烈)에 함축된다. 이런 작명은 인물에 대한 기대를 드러낼 수 있는 ‘충’과 ‘열’을 선택하고 두 글자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런 작명은 영웅의 상을 타고난 유충렬이 ‘충(忠)의 영웅이며 효(孝)의 영웅이기도’¹¹⁾ 함을 암시한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방법에 근거하여 성명을 작명하거나 작명된 성명의 의미를 해석한다. 이 방법을 성명학(姓名學)이라고 하며, 성명학은 수리성명학(數理姓名學)과 역상성명학(易象姓名學)으로 구분된다. 수리성명학은 원형리정(元亨利貞) 사격(四格) 수리의 영동력(靈動力)에 근거하여 성명의 의미를 해석하고 길흉(吉凶)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역상성명학은 괘(卦)의 상징적 의미에 근거하여 성명의 의미를 해석하여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나 길흉(吉凶)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성명학에 근거하여 인물의 성격 또는 일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명에 사용한 한자의 획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유충렬’의 정확한 한자 표기를 확정해야 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부귀영화가 선영을 빛내는 일은 충(忠)을 통해서 이룰 수 있으며, 맹기영풍(猛氣英風)이 사해에 진동하는 일은 열(烈)에 함축되어 있으므로 연구자들이 보편적으로 사

9) 김장동, 『고전소설의 이론』, 태학사, 1989, 113~118쪽.








10) 김병권, 「창선감의록의 인물 작명 서술과 서사적 의미」, 20쪽.

11)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338쪽.

용하는 ‘忠烈’이라고 표기해도 문제가 없을 듯하다. 성(姓)인 ‘유’의 한자는 이본에 따라서 ‘柳’, ‘兪’, 그리고 ‘劉’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 <유충렬전>의 연구자들이 보편적으로 ‘劉忠烈傳’이라고 표기한 점을 고려하여 ‘劉’를 선택하여 유충렬의 한자를 ‘劉忠烈’이라 표기하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이 연구에서 선택한 역상성명학은 성명에 사용한 글자의 획수를 활용하여 팔괘(八卦)를 중첩한 대성괘를 구성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성명의 획수를 활용하여 대성괘를 구성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여기서는 성명에 사용한 글자의 총획수에서 8씩 제하여 남는 수로 상괘(上卦)를 구하고, 명(名)에 사용한 글자의 획수에서 8씩 제하여 남는 수로 하괘(下卦)를 구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유충렬(劉忠烈)이라는 성명에 사용한 글자의 획수를 합한 총획수는 33이다. 33에서 8씩 제하면 남는 수가 1이다. 역수 1에 해당하는 괘는 건(乾, ☰)이며, 건(乾)의 상(象)은 천(天)이다. 명(名)에 사용한 충(忠)과 열(烈)의 획수를 합하면 18이다. 18에서 8씩 제하여 남는 수가 2이다. 역수 2에 해당하는 괘는 태(兌, ☱)이며, 태(兌)의 상(象)은택(澤)이다. 상괘 천(天)과 하괘 택(澤)을 중첩하면 천택이괘(天澤履卦)가 되며 이를 이괘(履卦)라고도 한다. 천택이괘의 괘상과 기본 설명은 아래의 표와 같다.

上九  九五  九四  六三   九二  初九 	履는 禮이니 禮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다. 卦됨이 하늘이 위에 있고 못이 아래에 있으니, 하늘이 위에 있고 못이 아래에 처한 것은 上下의 구분과 尊卑의 義이니, 理致에 마땅함이요, 禮의 근본이요, 떳떳이 행해야 할 道이다.(履禮也 禮人之所履也 爲卦 天上澤下 天而在上 澤而處下 上下之分 尊卑之義 理之當也 禮之本也 常履之道) ¹²⁾
--	---

『주역(周易)』은 자연과 인문 현상으로부터 드러나는 변화의 법칙을 추상적인 부호 체계를 통하여 상징하고, 여기에 문장을 덧붙여 길흉(吉凶)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실천적 행위의 기준을 제시한다.¹³⁾ 이러한 도덕적 가치와 실천적 행위는 괘사(卦辭), 상전(象傳), 그리고 효사(爻辭)에서 설명한다.

괘사는 한 괘의 전체적인 의미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인간은 이 괘사에서 가치 판단을 통하여 미래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준거 틀을 얻을 수 있다.¹⁴⁾ 상전은 ‘군자이(君子以)’를 기준으로 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앞부분은 자연 사물의 상태를 말하며, 이는 천도(天道)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뒷부분에서는 인간이 괘상(卦象)을 통하여 그곳에 숨어 있는 인도(人道)의 의미를 찾아내어 자신 속에서 그것을 현실화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¹⁵⁾ 천도(天道)는 자연의 이치라는 뜻이고, 인도(人道)는 사람의 도리이므로, 상전(象傳)은 자연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가 일치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실현을 지향한 내용이다. 효사는 한 괘의 전체적인 의미 상황에서 다시 특수하게 변화되는 의미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¹⁶⁾

따라서 『주역』을 소설 이해에 적용할 때, 괘사의 내용은 주로 인물의 성격을 이해하고, 효사는 주로 변화하는 사건의 전개 과정을 분석하고, 상전은 주로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원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유충렬이라는 성명에 사용한 한자의 획수와 수리로 구성된 천택이괘

12)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주역전의』 상, 전통문화연구회, 2001, 327쪽.
 13) 엄연석, 「주역에서 상(象)과 의미(意味)의 우연적 계기와 필연적 계기」, 한국주역학회 편, 『주역의 근본 원리』, 철학과 현실사, 2004, 69쪽.
 14) 엄연석, 「주역에서 상(象)과 의미(意味)의 우연적 계기와 필연적 계기」, 한국주역학회 편, 『주역의 근본 원리』, 49~50쪽.
 15) 정병석, 「주역의 관(觀)-세계와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의 기점으로서의 관(觀)-」, 한국주역학회 편, 『주역의 근본 원리』, 29쪽.
 16) 엄연석, 「주역에서 상(象)과 의미(意味)의 우연적 계기와 필연적 계기」, 한국주역학회 편, 『주역의 근본 원리』, 44쪽.

(天澤履卦)의 괘사(卦辭)와 상전(象傳)을 <유충렬전>에서 서술한 작품의 내용과 대비해봄으로써 부귀영화가 선영을 빛내고 맹기영풍이 사해를 진동할 것이라고 기대한 작명의 의도와 작품 구성의 유기적인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Ⅲ. 天澤履卦와 유충렬전의 구성

1. 履虎尾 不咥人과 인물 성격

『주역』의 괘사는 한 괘의 전체적인 의미 상황에서 가치 판단과 미래 행위의 준거를 설명하므로 인물의 가치관 또는 행위의 방향을 설명하는데 괘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의도적 작명에 내포된 의미와 작품에서 서술된 인물 성격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천택이괘(天澤履卦)의 괘사는 “범의 꼬리를 밟더라도 사람을 물지 않으니, 형통하다.(履虎尾 不咥人 亨)”¹⁷⁾이다. 이 괘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履)는 사람이 행하는 도(道)이다. 하늘은 위에 있고 못은 아래에 처하였으니, 유(柔)가 강(剛)에게 밟히고 깔려서 상하(上下)가 각각 그 의(義)를 얻은 바, 일에 지극히 순한 것이요 이치에 지극히 마땅한 것이다. 사람의 이행(履行)이 이와 같으면 비록 지극히 위험한 곳을 행하더라도 또한 해로운 바가 없다. 그러므로 범의 꼬리를 밟더라도 물림을 당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형통한 것이다.(履 人所履之道也. 天在上而澤處下 以柔履藉於剛 上下各得其義 事之至順 理之至當也 人之履行 如此 雖履至危之地 亦无所害 故履虎尾而不見咥嚙 所以能亨也)¹⁸⁾

17) 성백효 역주, 『현도완역 주역전의』 상, 327쪽.

18) 성백효 역주, 『현도완역 주역전의』 상, 328쪽.

범의 꼬리를 밟는다는 말은 천택이괘의 아래에 있는 택(澤)의 유(柔)가 위에 있는 천(天)의 강(剛)에게 밟히고 깔려 있는 위협과 불안의 상황을 의미한다.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말은 상하가 각각 의(義)를 얻고 일에 지극히 순(順)하고, 이치(理致)에 마땅하기 때문이다. 형통하다는 말은 이치에 따르면 해롭지 않고 뜻을 이루게 된다는 뜻이다. 천택이괘의 괘사에서 제시한 내용은 유충렬이 불안과 위협의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여 형통할 수 있는 도덕적 가치와 실천적 행위의 기준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유충렬전>의 시작에 나라의 불안정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즉 “디명국 영종황제 직위 초의 황실리 미약하고 범영이 불형훈 중의 남만 북적과 서역이 강성하야 모의할 뜻슬 두미 이련고로 천자 남경의 잇슬 뜻시 업셔 다른 디로 도읍을 옮기고져 하시더니”¹⁹⁾라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이 내용은 작품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제시한다. 황실이 미약하고 법령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기존의 질서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기의식”²⁰⁾의 표현이며, 나라가 내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강성한 남만, 북적 그리고 서역이 모반할 뜻을 둔다는 것은 나라가 외적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이처럼 내외적으로 불안하고 위협을 받는 배경은 역사적 현실과 관련하여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일정한 기능을 하게 된다. 배경 묘사에 이어서 유충렬의 출생과 그가 겪는 불안과 위협을 서술한다. 정한담은 천자를 도모하려고 하지만, 유심은 정한담의 욕망을 저지하려고 한다. 유심과 정한담의 갈등은 유충렬에게 불안한 상황이다.

그리고 남만, 북적, 그리고 서역이 협력하여 명나라에 침입하려고 준비할 때, 정한담은 욕망을 이루기 위해 천자에게 적대자인 유심의 처형을 건의하며, 천자는 정한담의 뜻을 받아들여 유심을 극한 상황의 유배지에 보낸다. 정한담은 유충렬과 그의 어머니를 불에 태워 죽이려 하고,

19) <유충렬전> 상, 제1장 전면.

20)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337쪽.

방화에서 피신한 유충렬과 어머니를 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지시한다. 천자를 도모하려는 정한담의 행위는 유충렬을 위협하는 사건들이다.

작품에서 서술하고 있는 배경과 일련의 사건들은 유충렬을 불안하도록 하고 그의 존재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안과 위협은 궤사에서 제시한 범의 꼬리를 밟는 것과 같은 불안과 위협의 상황이다.

다음으로 <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의 욕망은 위협과 불안의 상황에서 정한담에게 당한 부모의 원수를 갚는 일이다. 천자가 정한담에게 항복하기 위해 옥새를 목에 걸고 항서를 손에 들고 울면서 나올 때, 유충렬은 천자를 구하고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다.

충열이 저의 부친과 강히주 죽으물 절분이 역여 통곡하며 옛자오디 소장은 동성문 니 거흐던 정인주부 유심의 아달 충열이옵더니 주류기결 혀야 말리 밧씨 잇삽다가 아부 원수 갑푸라고 여긔 잠간 왓삽거니와 폐혀 정흔담의게 곤핍혀심은 몽중이로소이다 전일의 정흔담을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되난잇가 그 놈의 말을 듯고 충신을 원찬혀야 다 죽이고 이런 환을 만나시니 천지 아득혀고 일월이 무광혀옵니다²¹⁾

위의 글에서 유충렬의 과거의 삶과 욕망이 드러난다. 과거의 삶은 ‘주류 개결’에 응축되어 있다. 주류 개결은 정한담의 모함 때문에 부모와 헤어져서 겪었던 불안과 위협의 시련을 뜻한다. 욕망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일이다. 아버지의 원수는 가족을 해체하도록 부당하게 위협한 정한담이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는 욕망은 <유충렬전>의 의미를 “몰락한 계층의 정적에 대한 보복의식”,²²⁾ “국가라고 하는 유교적 이념의 절대적 가치와 대립하는 가족애(家族愛)”²³⁾ 또는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21) <유충렬전> 하, 제1장 후면~제2장 전면.

22) 서대석, 「유충렬전의 종합적 고찰」, 이상택·성현경 편, 『한국고전소설연구』, 새문사, 1983, 348쪽.

23) 김현양, 「유충렬전과 가족애(家族愛)」,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326쪽.

가족주의”²⁴⁾의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부모의 원수를 갚는 일은 시공(時空)을 초월하여 자식으로서 행해야 할 마땅한 이치이며 고전적 인성이기 때문에 가족애 또는 가족주의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충렬은 천자에게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다. 분노의 원인은 천자가 정한담의 말만 듣고 충신을 원찬하여 죽인 일이다. 천자가 충신과 간신을 구분하지 못한 일은 “무능하고 졸렬함을 드러낸 것”²⁵⁾이라고 볼 수 있다. 유충렬의 분노는 “사무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나오는 극한 행동”²⁶⁾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천자의 무능함과 졸렬함을 폭로하거나 천자의 면전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분노의 표현은 그것이 아무리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왕에 대한 충을 강조한 중세 왕조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경박하고 교만한 행위이다. 경박하고 교만한 마음은 자기의 능력을 과신한 집착에서 일어나는 마음이고, 신하로서 왕에 대한 예(禮)의 근본이 아니며, 마땅히 행해야 할 도(道)가 아니다. 예가 아니고 도리에 타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 부귀영화를 조상에 빛내고 맹기영풍을 사해에 떨치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충렬의 분노는 무능함과 졸렬함에 대한 표현 또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극한 행동이라는 해석을 넘어서 ‘유충렬’이라고 작명한 의도와 관련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충렬이 천자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뒤에 서술되는 아래와 같은 생각과 발언은 그의 도덕적 가치와 실천적 행위의 기준을 인식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충열이 우뚝을 근치고 티자 상을 보니 천자 괴상 적실하고 일디성군

24) 신재홍, 「유충렬전의 감성과 가족주의」, 『고전문학과 교육』 2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182쪽.

25)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337쪽.

26) 신재홍, 「유충렬전의 감성과 가족주의」, 182쪽.

될 듯하야 투고 버셔 싸의 노코 천자 전의 사죄왈 소장이 아비 죽으물
 혼튼하야 분심이 잇난고로 격절흔 말삼을 폐하 전의 알의여쁘니 죄사무
 석이라 소장이 죽사온들 폐하를 돕지 안이 호오릿가²⁷⁾

유충렬은 아버지 죽음을 한탄하고 분한 마음에서 격절한 말을 했던 것이라고 천자에게 사죄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천자를 돕겠다고 약속한다. 유충렬의 사죄와 약속은 완고한 고집을 온화한 성품으로 고쳤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태도에 대해서 후회했다는 뜻이며 교만한 자기 아집(我執)을 버렸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아집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의 과시를 후회한 일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깨달았다는 뜻이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수오지심(羞惡之心)은 의(義)의 단서이며,²⁸⁾ 군신유의(君臣有義)의 의(義)이기도 하다. 이처럼 유충렬은 강명(剛明)함을 자임(自任)하지 않고 분노의 마음을 온화하게 함으로써 왕과 신하 사이에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를 인식하고 행위의 기준을 실천하게 된다.

이런 문맥에서 보면, 유충렬이 천자의 무능에 대해 표현한 분노는 도덕적 가치와 실천적 행위의 기준을 재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유충렬이 재인식한 도덕적 가치와 실천적 행위의 기준은 천택이괘의 패사에서 “범의 꼬리를 밟더라도 물지 않으니”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범이 물지 않는다는 것은 패사의 전(傳)에서 설명하였듯이 “유(柔)가 강(剛)에게 밟히고 깔려서 상하가 각각 그 의(義)를 얻은 바, 일에 지극히 순한 것이요 이치에 지극히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이 강명함을 자임하지 않고 마땅히 행해야 할 군신(君臣)의 의(義)와 수오지심(羞惡之心)의 의(義)를 실천한 일은 천택이괘의 패사에서 일에 지극히 순하고 이치에 지극히 마땅한 것이라고 설명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27) <유충렬전> 하, 제2장 전면~후면.

28)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맹자』, 전통문화연구회, 1994, 104쪽.

마지막으로 유충렬은 정한담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생사를 알지 못했던 부모와 상봉함으로써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 정한담은 외적과 내통하고 천자를 위협하여 스스로 천자라고 한다. 유충렬은 천자라고 자칭한 정한담과 전투를 시작하면서 “네놈을 싱금하야 전후 죄목 무른 후의 네의 살을 포육 찌서 종묘에 제사하고 그 나문 고기는 바다다가 우리 부친 충훈당에 석전제를 지너리라”²⁹⁾고 호통한다. 이 발언은 부모의 원수를 갚는 일보다 위기에 처한 종묘사직 보존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중세적 가치 기준의 표현이며, 군신(君臣)의 의(義)를 실천하려는 의지이다. 그리고 유충렬은 어머니의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냄으로써 이 소문을 들은 어머니를 만나고, 정한담에게 아버지의 유배지를 물어 찾아가서 아버지를 만난다. 이 사건은 부모에 대한 효행의 실천을 보여준다. 이러한 유충렬이 군신의 의(義)와 부자의 친(親)을 실천한 가치관은 중세 사회의 질서를 유지했던 가치 체계의 핵심이다.

한편 천택이괘 패사에서 “형통하다”라는 말에 대해 전(傳)에서 “사람의 이행(履行)이 이와 같으면 비록 지극히 위험한 곳을 행하더라도 또한 해로운 바가 없다. 그러므로 범의 꼬리를 밟더라도 물림을 당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형통한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유충렬이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부모의 원수를 갚으려는 의지를 이루는 것은 천택이괘에서 준비의 의(義), 마땅한 이치(理致), 그리고 뚝뚝이 행해야 할 도(道)를 실천함으로써 형통한다고 제시한 내용을 활용하여 서술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은 남만, 북적, 그리고 서역과 공조하여 스스로 천자라고 칭했던 정한담을 사로잡아 종묘사직을 지키고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유충렬이 위협과 불안의 상황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교만한 마음의 과시를 후회하고 아집(我執)을 버림으로써 욕망을 이룬 내용이다. 이처럼 유충렬의 일생은 작명에서 기대했던 부귀영화와 맹기영풍

29) <유충렬전> 하, 제5장 후면.

을 실현한 과정이며, 다른 영웅소설의 영웅에 대한 개별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일생을 구성한 원리는 의도적으로 작명한 성명을 『주역』의 과상으로 해석한 상하의 의(義)와 일의 지극한 순리(順理), 마땅한 이치(理致)에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은 그의 성명에 사용한 한자의 획수와 수리로 구성된 천택이괘에서 제시한 도덕적 가치와 실천적 행위의 기준을 현실화한 인물이다.

2. 辨上下 定民志와 주제 형성

『주역』에서 상전(象傳)의 내용은 자연 사물의 상태에 숨어 있는 인도(人道)의 의미를 찾아내어 인간의 현실적인 삶에서 그것을 현실화해나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고전(古典)의 가치가 있다. <유충렬전>의 작가가 『주역』의 상징적 의미를 인물의 성격을 창조하는 데 활용하였듯이, 작품의 주제를 형성하는 데에도 『주역』을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의도적 작명과 주제 형성의 유기적인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천택이괘(天澤履卦)의 상전은 “상전에 말하였다.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못인 것이 이(履)이니, 군자가 보고서 상하를 분별하여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킨다.(象曰 上天下澤 履 君子以 辨上下 定民志)³⁰⁾”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늘이 위에 있고 못이 아래에 거함은 상하(上下)의 바른 이치이니, 사람의 행하는 바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 상(象)을 취하여 이(履)라 한 것이다. 군자가 이(履)의 상을 보고서 상하의 구분을 분별하여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니, 상하의 구분이 분명한 뒤에야 다스림을 말할 수 있으니, 백성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天在上 澤居下 上下之正理也 人之所履 當如是 故取其象而爲履 君子觀履之象 以辨別上下之分 以定其民志 夫上下之分明然後 民志有定

30)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주역전의』 상, 330쪽.

民志定然後 可以言治 民志不定 天下不可得而治也³¹⁾

천택이과는 위에 가장 높은 하늘이 바르게 있고 아래에 가장 낮은 연못이 바르게 있는 패이다. 군자가 바른 위치에서 상하의 구분을 분별하고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하는 일은 천하를 다스리기 위한 도덕적 가치와 실천적 행위의 기준이다.

먼저 <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은 상하의 구분을 분별하고 떳떳이 행해야 할 행위의 기준을 실천한다. 앞에서 천자와 유충렬의 관계에서 유충렬의 의(義)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유충렬이 상하의 분별에 따라서 바른 이치를 실현한 사건을 하나 인용한다.

승상이 빗기 나와 충열의 손을 잡고 네게 더사를 진탁홀 말리 있다 노부 말년의 무남독녀를 두어찌니 금일노 불진디 너와 천정이 적실하니 이제 빅연고락을 네게 부치노라 흐신디 충열이 궤좌호야 낙누호며 옛자 오디 소자갓뎡 잔명을 구완호야 실호의 두고자 호옵시니 감사무지로디 다만 통박호은 이리 흥중의 스몏찾나니다 소자 박복호와 양친이 죽은 줄도 모르고 취쳐호오면 인간의 죄인이라 글노 혼이로소이다³²⁾

윗글은 승상의 관직을 그만 두고 귀향했던 강희주가 유충렬을 사위를 삼으려고 할 때, 강희주와 유충렬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다. 유충렬이 강희주의 청혼을 거절한다. 이러한 거절에 유충렬의 완고한 고집이 드러나 있다. 유충렬의 고집은 아버지를 귀양 보냈던 천자에 대한 분노와 아버지를 모함했던 정한담에 대한 복수에서 일어난 정서적 반응이다. 그러나 이 고집은 “잔명을 구원하여 슬하에 두고자 하옵시니 감사무지로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양하는 마음 즉 사양지심(辭讓之心)의 표현이다. 사양지심은 예(禮)의 단서이다.³³⁾ 그리고 유충렬은 부모의 생사를

31)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주역전의』 상, 330쪽.

32) <유충렬전> 상, 제23장 후면~제24장 전면.

33)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맹자』, 104쪽.

알지 못하고 결혼하는 일은 죄인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부모의 생사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의 결혼이 옳지 못한 일임을 분명하게 판단한 시비지심(是非之心)의 발로이다. 시비지심은 지(智)의 단서이다.³⁴⁾ 따라서 위의 인용에서 본 유충렬의 예(禮)와 지(智)는 천택이괘의 자연 상태에 숨어 있는 사람의 떳떳한 도리인 도덕적 가치와 실천적 행위의 기준을 실현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유충렬은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킨다. 외적의 침략에 대응한 전쟁은 나라를 보전하려는 행위이지만 많은 백성들은 전쟁 때문에 전사, 가족 이별, 약탈 등 희생을 당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전쟁의 무리와 함께 그들의 안정된 삶에 복귀하기를 지향하게 된다.

이새 장안 만민이 남적에게 잡혀갔던 떠나리며 쌓이며 동성드리 본국의 도라온단 말을 듣고 호산더 십니 썬의 빈틈업시 마조 나와 각각 만나 옥수 나삼 부여잡고 기루던 그 정곡 못니 질거허야 우름소리 우심소리 반공에 뒤석기어 호산더가 떠나간 듯 원슈를 치사하고 장부인을 치사하난 소리 낭자허야 요른하고...(이하생략)...³⁵⁾

윗글은 유충렬이 전쟁 때문에 가달국으로 잡혀 갔던 백성들을 구출하여 돌아오는 장면이다. 헤어졌던 가족의 만남은 삶의 안정을 소망했던 그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유충렬은 “전란 속에 신음하는 약자들의 편에 서 있는 전형적인 인물”³⁶⁾이다. 전쟁으로 인하여 잡혀 갔던 백성들의 편에 서서 약자들을 구출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은 그들의 삶을 측은하게 여기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이다. 측은지심은 인(仁)의 단서이다.³⁷⁾ 따라서 유충렬이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킨 측은지심

34)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맹자』, 104쪽.

35) <유충렬전> 하, 제45장 전면.

36) 정인혁, 「유충렬전의 인물 구성과 서술적 특성」, 『한국고전연구』 2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580쪽.

37)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맹자』, 104쪽.

(惻隱之心)은 천택이괘에서 제시한 이치(理致)에 마땅하고 예(禮)의 근본이며 떳떳이 행해야 할 도(道)를 나라 다스리는 데 현실화한 내용이다. 이러한 작품 구성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 즉 지배계층에게 고통을 받는 백성의 삶에 대해 시대적 사명감을 각성하도록 요구한 의미가 있다.

<유충렬전>의 주제를 천택이괘의 상전에서 제시한 “상하를 분별하여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파악할 수 있다. 백성의 안정된 마음과 삶은 유충렬의 성명에 내재한 도덕적 가치와 실천적 행위의 기준이다. 유충렬은 이런 가치와 행위의 기준인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실천함으로써 전쟁의 고통에서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과업을 완수한 인물이다. 유충렬의 과업 완수는 의도적 작명에서 기대했던 부귀영화가 선영에 빛나고 맹기영풍이 사회에 진동할 것이라는 내용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러한 과업 완수는 작품의 주제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유충렬전>은 조선조 후기의 혼란한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소망했던 백성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가치 체계와 행위 기준을 실천하고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제를 형상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제는 유충렬과 정한담이 서로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대립하는 사건의 전개를 천택이괘의 효사(爻辭)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IV. 주역을 통한 작품 이해의 문화적 의의

앞에서 유충렬의 성명으로 구성된 천택이괘의 괘체, 괘사, 그리고 상전을 중심으로 인물의 성격과 작품의 주제 형성에 대해 이해하였다. 유충렬은 범의 꼬리를 밟아도 물지 않는 성격의 인물이며, <유충렬전>은 유충렬이 상하를 분별하고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는 일을 서술한 작품이

다. 이제 인물의 성격과 주제를 『주역』으로 해석한 문화적 의의를 살펴 보고자 한다.

『주역』은 음양(陰陽)과 팔괘(八卦)를 이용하여 우주 만물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법칙을 철학적 부호체계로 구성한 것으로 여기에는 우주 만물의 법칙과 질서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실천하고 본받아야 할 진리와 도리까지 함축하고 있다.³⁸⁾ 퇴계(退溪)는 『주역』을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한 제자에게, 『계몽전의(啓蒙傳疑)』를 숙독하고 깊은 맛을 상세히 알아서 오랜 세월동안 쌓으면 모든 실체가 드러나 보이며, 모든 현실적 사물의 이치가 이 책에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주역』을 공부해야 한다고 가르쳤다.³⁹⁾ 『주역』은 중세에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필독서였던 사서삼경(四書三經)의 하나이고, 그들은 『주역』의 독서를 통해서 우주의 법칙과 질서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실천하고 본받아야 할 진리와 도리를 추구했던 것이다.

그러면 중세의 유학자들이 『주역』을 어떻게 공부했을까? 이에 대한 답은 「계사전(繫辭傳)」에 설명되어 있다.

군자가 거하여 편안히 여기는 것은 역의 차례이고 즐거워하여 구경하는 것은 효의 말이니, 그러므로 군자는 거하면 그 상을 보고 그 말을 살펴보며, 동하면 그 변화함을 보고 그 점을 살펴본다. 이 때문에 하늘로부터 도와주어 길하며 이롭지 않음이 없다.(君子所居而安者 易之序也 所樂而玩者 爻之辭也 君子居則觀其象 而玩其辭 動則觀其變 而玩其占 是以自天祐之 吉无不利)⁴⁰⁾

군자는 거하면 그 상을 보고 그 말을 살펴보며, 동하면 그 변화함을

38) 정병석, 「주역의 관(觀)-세계와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의 기점으로서의 관(觀)」, 한국주역학회 편, 『주역의 근본 원리』, 25쪽.

39) 민족문화추진회 편, 「언행록」, 『국역 퇴계집』 II,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6, 227쪽.

40)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주역전의』 하, 전통문화연구회, 2001, 528~529쪽.

보고 그 점을 살펴본다고 한다. 『주역』은 “성인이 깊음을 다하고 기미를 살펴는 것(聖人之所以極深而研幾也)”⁴¹⁾이다. 변화는 “나아감과 물러감의 상(進退之象也)”⁴²⁾이다. 그리고 점(占)이라고 한 것은 “수(數)를 극진히 하여 미래를 아는 것(極數知來之謂占)”⁴³⁾이다. 그래서 『주역』을 통해서 미래를 안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과 변화의 원리에 근거하여 사람이 실천해야 할 진리와 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점을 본다는 말은 변화의 조짐을 알고 통하여 변해야 할 방향을 진리와 도리에 일치하도록 예측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윗글에서 보면, 하늘로부터 도와주어 길하며 이롭지 않음이 없다고 한다. 『주역』에서 “길흉은 실(失)과 득(得)의 상(吉凶者 失得之象也)”이라 하고, 이에 대해서 “이치에 맞으면 길(吉)하고 이치를 잃으면 흉(凶)하다.(得則吉 失則凶)”라고 설명한다.⁴⁴⁾ 이러한 설명에 의하면, 길(吉)은 득(得)으로 보면 얻음이 있다는 뜻이며, 인간이 역도(易道)의 법칙에 순응하여 행하면 통하게 되고 통하면 얻게 된다. 흉(凶)은 실(失)로 보면 잃어버림이 있다는 뜻이며, 인간이 역도(易道)에 위배하여 행하면 통할 수 없게 되며 불통(不通)하면 뜻이 달성되지 못하여 잃어버리는 것이 있게 된다고 해석한다.⁴⁵⁾

유충렬이라는 성명은 부귀영화를 선영에 빛내고 맹기영풍을 사해에 떨칠 것이라는 장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 의도에서 작명되었다. 의도적으로 작명된 성명의 수리를 활용하여 구성한 천택이괘의 괘사에서 “범꼬리를 밟아도 물지 않으니 형통하다.”고 설명한 내용과 상전에서 “상하를 분별하여 백성의 뜻을 안정시킨다.”고 설명한 내용은 불안과 위협의 상황을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로 극복하고 형통할 수 있는 역도(易道)의

41) 성백효 역주, 『현도완역 주역전의』 하, 556쪽.

42) 성백효 역주, 『현도완역 주역전의』 하, 528쪽.

43) 성백효 역주, 『현도완역 주역전의』 하, 537쪽.

44) 성백효 역주, 『현도완역 주역전의』 하, 527쪽.

45) 고회민 저, 정병석 역, 『주역철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6, 290쪽.

법칙이며, 이 역도는 “도덕적 당위로서의 천도(天道)”⁴⁶⁾가 된다. 작품에서 유충렬은 천자를 도모하는 정한담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불안과 위협의 상황에서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실천한다. 그리고 정한담을 돕던 옥관도사가 유충렬에 대해 “급주 창검도 천신의 조화거니와 빅용사 노승은 원슈 우편의 응위하고 남악형산 화선관은 좌편의 시위하여쓰니”⁴⁷⁾라고 말한다. 이 말은 하늘이 유충렬을 도왔다는 뜻이다. 그리고 유충렬은 정한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종묘사직을 지키고 부모의 원수를 갚고 백성의 삶을 안정시킨다. 따라서 유충렬은 성명의 수리로써 구성된 궤에서 제시한 역도(易道)에 순응한 인물이며, 그 결과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작명의 의도에서 밝혔던 부귀영화를 선영에 빛내고 맹기영풍을 사해에 떨치게 된다.

유충렬과 갈등하고 대립한 인물은 정한담이다. 지상계(地上界)에서 전개되는 두 인물의 대립은 유충렬 탄생의 태몽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천상계(天上界)에서 전개되었던 대립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정한담의 성명으로써 구성된 궤의 내용은 작품에서 서술한 그의 성격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정한담’이라는 성명의 수리를 활용하여 궤를 구성하고 그 성명의 의미와 작품에서 실현된 내용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한담의 한자는 연구자들이 보편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鄭漢潭(정한담)’이라고 전제한다. ‘鄭漢潭’이라는 성명에서 ‘鄭’은 19획이고, ‘漢’은 15획이며, ‘潭’은 16획이다. 성명에 사용한 글자의 획수를 합한 총획수는 50이다. 50에서 8씩 제하면 남는 수가 2이다. 역수 2에 해당하는 궤는 태(兌, ≡)이고 그 상은택(澤)이다. 그리고 명(名)에 사용한 글자를 합한 수는 31이다. 31에서 8씩 제하여 남는 수가 7이다. 역수 7에 해당하는 궤는 간(艮, ≡)이고, 그 상은산(山)이다. 상괘택(澤)과 하괘산(山)을 중

46)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336쪽.

47) <유충렬전> 하, 제47장 전면.

첩하면 태산함괘(澤山咸卦)가 되며, 간단하게 함괘(咸卦)라고도 한다. 태산함괘의 괘상과 괘의 설명은 아래의 표와 같다.

上六	☰	☷	咸卦는兌가 위에 있고艮이 아래에 있으니, 少女와 少男이다. 男女가 서로 감동함의 깊음은 어린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두 어린 것이 咸이 된 것이다.(咸之爲卦 兌上艮下 少女少男也 男女相感之深 莫如少者 故二少爲咸也) ⁴⁸⁾
九五	☰	☷	
九四	☰	☷	
九三	☰	☷	
六二	☰	☷	
初六	☰	☷	

태산함괘의 괘사는 “함(咸)은 형통하니 정(貞)함이 이로우니, 여자를 취하면 길하리라.(咸 亨 利貞 取女吉)”⁴⁹⁾이다. 정한담은 성명으로 볼 때, 정도(貞道)를 행하여야 형통하고 이로울 수 있고 길(吉)할 수 있다.

<유충렬전>에서 서술자는 정한담의 성품에 대해 “벼살리 일품이요 포악이 무쌍이라 만민의 심사난 장중에 미여 있고, 일국의 권세난 손싯티 달여스니”⁵⁰⁾라고 묘사한다. 이런 묘사는 그 인물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며, 이런 성품을 정(貞)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정한담은 샅된 옥관도사의 간사한 조언과 계략을 따르면서 천자가 되기를 도모하여 충신을 모함하여 원찬하고, 그의 가족을 다 죽이려 하며, 외적과 내통하여 선봉장으로서 도성을 공격하고, 천자를 위협하면서 스스로 천자라고 칭한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중세 왕조 국가에서 정도(貞道)일 수 없고, 정도로써 행하지 않았으니 형통할 수 없고 이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정한담은 성명으로 구성된 괘에서 제시한 도덕적 가치나 실천적 행위의 기준을 위배한 인물이다.

48) 성백효 역주, 『현도완역 주역전의』 하, 7쪽.

49) 성백효 역주, 『현도완역 주역전의』 하, 8쪽.

50) <유충렬전> 상, 제6장 전면.

택산함괘(澤山咸卦)의 상전(象傳)은 “산 위에 못이 있는 것이 함이니, 군자가 보고서 마음을 비워 남의 의견을 받아들인다.(山上有澤 咸 君子以 虛受人)”⁵¹⁾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집(我執)을 없애는 것이니, 마음에 사사로운 주장이 없으면 감동에 통하지 않음이 없다.”⁵²⁾고 설명한다. 이처럼 정한담은 아집을 버리고 사사로운 주장을 없애면 통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유충렬전>에서 정한담은 간사한 옥관도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유충렬과 싸우면서 천자를 도모하려는 아집을 버리지 않는다. 그 결과 천자의 신임을 잃고 전쟁에서 유충렬에게 패하여 장안에서 나졸에게 목이 베이는 형을 당한다.

이때의 장면은 여인들이 “흔담의 상토 잡고 신썩 버셔 양 귀밧츨 썩썩 치며 오날날 베힌 고로 네 고기를 난와다가 우리 가장 혼빱이나 여흔 없시 굽푸리라”⁵³⁾고 말하며, 장안의 많은 사람들이 “벌새가치 달여드러 점점이 올려 노코 간도 니여 씹어 보고 살도 베혀 먹어보며”⁵⁴⁾라는 내용으로 서술된다. 사된 도사의 도움을 받아서 천자가 되려는 아집을 없애지 않았던 정한담의 패가망신을 극대화한 내용이다. 이러한 작품의 내용을 보면, 백성의 적개심과 분노는 남만과 북적, 서역에서 침입한 외적에게만 있지 않고, 오히려 외적과 내통하여 그들의 삶을 불안하게 했던 정한담과 같은 간신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이해하게 된다.

정한담의 성격은 성명의 수리로 구성된 택산함괘(澤山咸卦)의 괘사에서 형통하고 정(貞)하면 이롭다고 암시되어 있으며, 상전에서 마음을 비우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충렬전>에서 정한담은 자신의 성명에 내포한 역도(易道)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위배하였기 때문에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길

51) 성백효 역주, 『현도완역 주역전의』 하, 11쪽.

52) 성백효 역주, 『현도완역 주역전의』 하, 11쪽.

53) <유충렬전> 하, 제29장 후면.

54) <유충렬전> 하, 제30장 전면.

(吉)하지 못한 인물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명의 수리로 구성된 패에서 설명한 도덕적 가치와 실천적 행위의 기준에 대하여 유충렬은 순응(順應)하여 길(吉)한 인물인 반면에 정한담은 위배(違背)하여 길(吉)하지 못한 인물이다. 유충렬과 정한담의 대립은 충신과 간신의 대립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성명에 내포한 도덕적 가치와 실천적 행위의 기준에 순응한 인물과 위배한 인물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계사전」에서 『주역』은 깊음을 다하고 기미를 살피는 것이며, 점(占)은 수(數)를 극진히 하여 미래를 아는 것이며, 역도(易道)를 순응하면 얻음이 있어 길(吉)하고 역도를 위배하면 잃음이 있어서 흉(凶)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면, <유충렬전>의 작가는 「계사전」에서 설명한 점(占)의 이치를 수용하여 인물의 성명을 의도적으로 작명하고 작품을 창작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역도(易道)에 순응하면 길(吉)하고 위배하면 흉(凶)다는 『주역』의 원리를 응용한 작명 문화의 시각에서 인물의 성격과 작품의 주제 형성을 해석한 점에서 문화적 의의가 있다. 이러한 문화적 의의가 바로 현대소설과 변별되는 고소설의 특징이다.

V.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유충렬전>을 대상으로 하여 고소설에 서술된 인물의 성격 또는 작품의 주제가 인물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작명한 성명의 수리로 구성된 패(卦)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유충렬전>의 작가는 주인공이 천하를 평정함으로써 부귀영화(富貴榮華)가 선영에 빛나고 맹기영풍(猛氣英風)이 사해에 진동할 것이라고 기대하여 그 성명을 ‘유충렬’이라 작명하고 작품의 이름을 <유충렬전>

이라고 붙였다.

유충렬의 작명에 사용한 한자의 획수와 수리는 천택이괘(天澤履卦)를 구성하고, 이 괘는 불안하고 위협을 받는 현실 상황에서 이치(理致)에 마땅함, 예(禮)의 근본, 뉘뉘이 행해야 할 도(道)를 행하여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도덕적 가치와 실천적 행위의 기준을 함축하고 있다. 반면에 정한담의 작명에 사용한 한자의 획수와 수리는 태산함괘(澤山咸卦)를 구성하고, 이 괘는 바르면 이롭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도덕적 가치와 실천적 행위의 기준을 제시한다.

<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은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실천하여 성명에 내포한 마땅한 이치, 예의 근본, 뉘뉘이 행해야 할 도를 현실화함으로써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인물이 된다. 정한담은 포악하여 자신의 성명에 내포한 정도(眞道)를 따르지 않고 샅된 도사의 도움을 받아서 천자를 도모하였기 때문에 인심을 얻지 못하고 패가망신한 인물이다. 작품의 주제는 두 인물의 대조를 통해서 안정된 삶을 소망했던 백성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도덕적 가치와 실천적 행위를 실천하고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내용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유충렬의 성격과 행위는 의도적 작명에서 기대되었던 부귀영화와 맹기영풍을 실현하는 원천이 된다.

정한담과 유충렬은 각각의 욕망 차이 때문에 대립한다. 정한담의 욕망은 천자가 되려는 것이다. 유충렬의 욕망은 정한담의 모함 때문에 유배를 당한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일이다. 그런데 유충렬은 성명에 함축된 도덕적 가치와 실천적 행위의 기준에 순응한 인물이고, 정한담은 성명에 함축된 도덕적 가치와 실천적 행위의 기준에 위배한 인물이다. 유충렬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는 자신의 욕망을 이롭과 동시에 왕실을 보전한 덕으로 부귀영화를 얻는다. 그러나 정한담은 일시적으로 천자가 되어 욕망을 이루지만 결국 백성들의 인심을 얻지 못하고 패가망신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충렬전>은 성명으로 해석한 역도(易道)에 순응(順

應)한 유충렬과 성명으로 해석한 역도(易道)에 위배(違背)한 정한담 사이의 대립에서 유충렬의 승리로 사건이 전개된 작품이다.

이 연구는 『주역』의 원리를 응용하여 성명을 작명한 관습적 문화의 시각으로 인물 성격과 주제 형성을 해석한 점에서 문화적 의의가 있다. 유충렬과 정한담의 갈등과 대립으로 전개되는 사건이 성명의 수리로 구성된 『주역』의 효사(爻辭)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다음의 과제로 삼는다.

참고문헌

- 고희민 저, 정병석 역, 『주역철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6.
- 곽신환, 『주역의 이해 : 주역의 자연관과 인간관』, 서광사, 1991.
- 김동욱 편, <소대성전>, 완판본,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 1, 인문과학연구소, 1973, 573~594쪽.
- 김동욱 편, <유충열전>, 완판본,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 2, 인문과학연구소, 1973, 335~377쪽.
- 김동욱 편, <장풍운전>, 완판본,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 2, 인문과학연구소, 1973, 545~562쪽.
- 김동욱 편, <홍길동전>, 경판 야동본,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 5, 나손서옥, 1975, 1003~1018쪽.
- 김병권, 「장풍운전 구성의 성명학적 접근」, 『어문교육논집』 17,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2000, 33~52쪽.
- 김병권, 『장풍운전과 문화관습』, 세종출판사, 2001.
- 김병권, 「창선감의록의 인물 작명 서술과 서사적 의미」, 『한국민족문화연구』 18,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1, 1~22쪽.
- 김병권, 「창선감의록에 서술된 점복의 서사문화적 의미」, 『국어교과교육연구』 3, 국어교과교육학회, 2002, 147~170쪽.
- 김병권, 『홍길동전 창작의 주역적 원리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6, 국어교과교육학회, 2003, 235~260쪽.
-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의 수리성명학적 연구」, 『동남어문논집』 9, 동남어문학회, 2005, 51~71쪽.
-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 원천의 역상성명학적 연구」, 『한국문학논총』 44, 한국문학회, 2006, 61~86쪽.
- 김병권, 「열녀춘향수절가 구성의 주역적 원리 연구」, 『한국문학논총』 47, 한국문학회, 2007, 5~33쪽.
- 김상연, 『좋은 이름 이렇게 짓는다』, 갑을당, 1993.
- 김석진 강해, 『주역강해』 상·하, 대유학당, 1994.

- 김우재, 『사주와 성명학』, 명문당, 1997.
- 김장동, 『고전소설의 이론』, 태학사, 1989.
- 김현숙, 「심청전 구성의 수리성명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현양, 「유충렬전과 가족애(家族愛)」,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311~334쪽.
- 남희근 지음, 신원봉 옮김, 『주역강의』, 문예출판사, 2000.
- 민족문화추진회 편, 「언행록」, 『국역 퇴계집』 II,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6.
- 박용식, 『고소설의 원시종교사상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6.
- 서대석, 「유충렬전 연구」, 『창작과 비평』 43, 창작과 비평사, 1977, 103~126쪽.
- 서대석, 「유충렬전의 종합적 고찰」, 이상택·성현경 편, 『한국고전소설 연구』, 새문사, 1983, 336~375쪽.
-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주역전의』 상·하, 전통문화연구회, 2001.
-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맹자』, 전통문화연구회, 1994.
- 손영주, 「고전소설 교육을 위한 장끼전의 주역적 원리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신재홍, 「유충렬전의 감성과 가족주의」, 『고전문학과 교육』 2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169~193쪽.
- 양명학, 「한국 소설의 주역적 연구-소설 원리와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염연석, 「주역에서 상(象)과 의미(意味)의 우연적 계기와 필연적 계기」, 한국주역학회 편, 『주역의 근본 원리』, 철학과 현실사, 2004, 39~81쪽.
- 이선혜, 「임경업전 구성의 수리성명학적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13, 국어교과교육학회, 2007, 283~311쪽.
- 이선혜, 「임경업전 인물 형성화의 관습문화적 원리」, 『국어교과교육연

- 구』 16, 국어교과교육학회, 2009, 89~124쪽.
- 정순희, 「고전소설 교육을 위한 열녀춘향수절가 구성의 오행적 원리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정병석, 「주역의 관(觀)-세계와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의 기점으로서의 관(觀)-」, 한국주역학회 편, 『주역의 근본 원리』, 철학과 현실사, 2004, 17~38쪽.
- 정인혁, 「유충렬전의 인물 구성과 서술적 특성」, 『한국고전연구』 2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559~582쪽.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 최혜진, 「유충렬전의 문학적 형상화 방식」, 『고전문학연구』 13, 한국고전문학회, 1998, 121~151쪽.
- <창선감의록> 천·지·인, 규장각 소장 필사본.
- 홍원태, 「고전소설 교육을 위한 사씨남정기의 문화관습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李潤生, 『正體·表德·美稱—姓名文化概說—』, 中國, 華文出版社, 1997.
- 袁 眞, 『姓名學概論』, 中國, 西藏人民出版社, 2001.

<Abstract>

Study on the characters through their names in the Story of Yuchungryeol

Kim, Byeong-Kweon

This study is designed to illuminate relationships between a character's personality in Korean ancient novels and his name that reflects his behavior based on its trigram from the Book of Changes.

The author of the Story of Yuchungryeol named the main character Yu chungryeol in expectation of his successful life as a subjugator of the whole country with his loyalty and pass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name, Yuchungryeol, in terms of its trigram from the Book of Changes, it implies that he will overcome dangerous situations and stabilize the subjects' livelihood by doing right things in an honorable way. On the other han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name, Jeonghandam, in terms of its trigram from the Book of Changes, it connotes that being upright is advantageous and it is necessary for him to tap people's opinions. Yuchungryeol is a character who actualizes his courtesy, the reason, and right things, and the theme of the story is that the stabilization of the people's livelihood should be maintained by distinguishing social classes.

Yuchungryeol and Jeonghandam are in an antagonistic relationship because of their different desire. Yuchungryeol's desire is to revenge his father on Jeong handam who slanders his father. Yuchungryeol pursues the standards that are connoted in his name, whereas

Jeonghandam does not so. Yuchungryeol achieves his desire to avenge his father, receiving wealth and honor. Jeonghandam, however, temporarily achieves his desire to become a king, but ruins both himself and his family and is eventually killed by his subjects.

This structure of the story is construed as a reflection of culture that characters in Korean ancient novels are named after the author's expectations, and they are expected to achieve what their name implies.

Key Words : the Story of Yuchungryeol, cultural and customary phenomenon, naming, characters' personality, the theme of the story, the principles of the Book of Changes, the way of Heaven, humanity.

■ 논문접수 : 2012년 3월 15일

■ 심사완료 : 2012년 3월 31일

■ 게재확정 : 2012년 4월 10일